“전통시장 살리기 청년 여러분 함께 합시다”

광주 말바우 시장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하는 ‘바우푸드협동조합’

공간 무료 대여·창업교육·메타버스·관광 등 “젊은 아이템으로 전통시장 매력 알려 주길”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말바우 시장은 예전만 하더라도 장날이면 지역민들로 붐볐지만, 구도심에 위치한 데다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상인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손님들마저 과거에 견줘 부쩍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말바우 시장에 자리를 잡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목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홍룡(35)씨와 회원 10명이 함께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바우푸드협동조합’이 그들이다.

바우푸드협동조합 대표를 맡은 김홍룡씨는 “바우푸드협동조합은 청년들과 말바우 시장 상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상권 활성화와 상인 및 청년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바우푸드협동조합은 말바우 시장에서 각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바우푸드는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메타버스, 관광, F&B(Food and Beverage) 등 4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젊은이는 물론 지역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드려 합니다. 아울러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공간을 무료 대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원하면 공장 견학과 쿠킹 클래스, 메타버스, 창업 기본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조합이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상인분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대(代)를 이어 영업 하는 곳도 없다 보니 점포 수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상인이 없으니 손님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곳에 청년들이 들어온다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젊은 아이템을 내세워 모든 연령층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말바우 시장이야말로 청년들이 가장 창업하기 좋은 공간이라며 많은 청년이 찾아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바우 시장 인근에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가까운 데다, 주거비도 저렴해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죠. 청년들에게도 창업하기 좋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말바우 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홍룡씨는 “바우푸드협동조합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도심재생의 모델이 돼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싶다. 아울러 청년들이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따뜻한 밥 한끼를 먹으며 시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시장만의 매력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창올림픽’ 양정웅 감독 명량대첩축제 지휘

총감독 위촉…출정식 등 획기적 변화로 세계적 축제 기대

전남도가 9일 명량대첩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을 맡았던 양정웅〈사진〉 예술감독을 총감독으로 위촉했다.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명량대첩축제의 출정식, 해전 재현, 퍼레이드 등 메인행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양정웅 신임 총감독은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2022년 명량대첩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지휘하게 된다.

예술적 능력과 국제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양정웅 총감독은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예대 공연학부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양 총감독은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아트앤테크 디렉터(예술감독)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또 연극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 런던 바비칸 센터,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초청공연 등 50여 나라 15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수준높은 공연이란 평가를 받았다.

양 총감독은 “역사적인 현장 울돌목에서 역사적인 사건인 명량대첩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최근 추세에 맞게 경쟁력 없는 콘텐츠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흥행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미래지향적 테마와 메시지로 탈바꿈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명량대첩축제는 2008년부터 13회 개최됐다. 올해는 9월 23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첼리스트 장한나 함부르크심포니 수석 객원지휘자로

천재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사진〉가 독일 함부르크심포니 새 수석 객원지휘자로 나선다.

함부르크심포니는 지난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에서 장한나가 2022/2023 시즌에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함부르크심포니 객원 지휘자로는 샤를 뒤투아, 피네건 다우니 디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함부르크심포니 수석지휘자 실뱅 캄브렐링은 “훌륭하고 생기 넘치는 지휘자 장한나와 샤를 뒤투아 같은 동료들이 (새 시즌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한나는 자신의 첼로 스승인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 오는 12월 4일 아침음악회에서 솔리스트로 나서며, 내년 3월 26일에는 심포니 콘서트를 지휘한다.

장한나는 “함부르크심포니의 수석 객원지휘자가 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면서 “음악적 모험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년시절부터 천재 첼리스트로 명성을 얻었던 장한나는 30대에 들어선 2010년대부터는 지휘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는 노르웨이 트론헤임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건협 광주전남지부 ‘효 나눔 카네이션 전달’ 행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김계환)는 어버이날을 맞아 최근 광주 서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건협 제공〉

전남대병원, 어버이날 쾌유 기념 선물 전달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간호부(간호부장 주덕)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환자들에게 카네이션과 마스크를 선물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남대병원은 본원 530명, 화순전남대병원 200여명, 빛고을전남대병원 20명 등 총 750명의 환자들에게 꽃과 마스크를 선물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오늘의 날씨

해뜸	05:33	달뜸	13:03
해짐	19:25	달짐	02:18

따가운 봄볕

가끔 구름 많고 저녁부터 흐리겠다.

광주	구름많음	12/25	보성	구름많음	10/22
목포	흐림	12/22	순천	구름많음	12/24
여수	구름많음	14/20	영광	흐림	10/23
나주	흐림	9/24	진도	흐림	11/21
완도	구름많음	13/21	전주	구름많음	11/24
구례	구름많음	9/24	군산	구름많음	11/23
강진	구름많음	10/22	남원	구름많음	9/24
해남	구름많음	9/22	흑산도	흐림	12/19
장성	구름많음	9/25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먼바다(북)	0.5~1.0	0.5~1.0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0
	먼바다(서)	1.0~2.0	1.0~2.0
	먼바다(동)	1.5~2.5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11	08:37
	15:11	20:59
여수	11:01	04:13
	22:52	17:08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매우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3/26	15/25	15/25
14(토)	15(일)	16(월)
11/23	12/23	12/25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부음

▲이예순씨 별세, 최승열(광주일보 광산주재 부국장)씨 모친상 = 발인 10일 오전 7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빛장례식장 4층 특실 062-452-4000.